

주체적이고 욕망에 집중하며 삶의 주인으로서 살라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노자와 장자에 기대어

최진석 지음

그는 우리에게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주체적이고 욕망에 집중하며 살라고 권한다.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가 주체적이고 욕망하는 개인에게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말한다. “원하는 것이 뚜렷할 때, 삶은 별처럼 빛난다”고.

철학자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그는 사단법인 '새말새몸짓' 이사장, '새말새몸짓' 기본학교 교장이기도 하다. 이전에는 건명원(建明苑) 초대 원장을 역임했다.

평생 노장철학을 연구해온 최진석 교수가 자신의 철학적 출발점인 '나'와 '가족' 이야기를 담은 책을 펴냈다. 사실 철학하면 딱딱하고 논리적인 글이 연상된다. 그러나 이번 책 '노자와 장자에 기대어'는 철학자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단상으로 채워져 있어 색다른 글맛을 느낄 수 있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사유와 접목돼 있어 잔잔한 울림을 선사한다. 지난 2020년 회갑 날 즈음, 최 교수는 자신의 옛 자리를 방문한다. 익히 알려진 대로 그의 고향은 함



평이지만 텃지라는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장병도(長柄島)라는 섬이다. '긴 자루'라는 뜻의 섬은 '장병'처럼 길게 누워 있는 형국이다. 행정 구역상 하의면 후광리에 속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호 후광(後曠)은 후광리라는 지명을 딴 것이다)

최 교수 부친은 장병도라는 섬 지명을 따서 아들 이름을 지었다. (당시 부친은 사골 초등학교 교사였다.) '진절'이라는 이름인데, 전라도 식 발음이 '진 자리'였을 것이며 후일 '진절'로 굳어졌을 거라는 얘기다. 그렇게 '최진절'은 네 살까지 섬에서 살다가 부모를 따라 함평으로 오게 된다.

그러나 부친은 함평에 와서 아들 이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진절머리 난다'는 표현이 연상돼 불편한 상황이 자주 연출됐다. 부친은 손불면 사무소에서 '절(節)'을 '석(石)'으로 바꾸는 모험을 감행한다. '재(才)' 변에 한 획을 첨가해 '목(木)'으로 고쳐 '진석'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것.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 자신이 태어난 신안의 섬을 찾은 날, 저자는 '진절'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마을의 할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된다. 아버지의 초등학교 제자인 할머니는 기억에도 없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처럼 책에는 그동안 꺼낸 적 없는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비롯해 큰누나와의 이별까지 인간적인 고백이 담겨 있다.

특히 저자는 평생을 통해 '죽음'을 사유했는데,

고교 1학년 때 본 별뿔별이 계기였다. 사골집 마당에서 별뿔별이 사라지는 모습을 본 것이다. 당시 그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했다. “나는 별의 특징이 두 가지라 생각한다. 한 가지는 먼 곳에 있으며 이곳에 있지 않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반짝반짝 빛나며 별뿔별과 달리 오랫동안 머무른다. 그때 고 1이었던 나는 '영원한 것'에 대해 생각했다.”

큰누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는 삶과 죽음을 깊이 생각했다. 삶에 대한 통찰이 그러한 죽음을 매개로 발현된 것이다. 다시 말해 죽음으로 향하되 영원하고 절대 자유를 꿈꾸었다. 물론 노장철학의 무위자연과 곤(鯁)이 대봉(大鵬)이 되는 적후지공(積厚之功)의 경지를 살아가기 위해선 자기 성찰과 노력이 전제돼야 하는 것도 이후 인식하게 된다.

'나'라는 존재에서 출발한 저자의 철학은 사회와 국가로 전이된다. 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이혼과 시스템을 따라 가느라 사회 문제를 개인적 일로 치환하고 문제 해결에 치열함이 부족했다고 진단한다. 철학자의 철학적 방법론과 사유의 높이 그 자체를 배워야 한다는 논리다.

아울러 저자는 '낯설게 보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거의 모든 철학서에 '철학은 경이에서 출발한다'라고 쓰여 있다. 그 말은 철학은 낯설게 하기에서 출발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낯설게 보는 '호기심'이라는 불꽃이 피어날 때 인간은 비로소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철학적 사유의 시작은 세계를 주체적으로 다루는 전략의 수립으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다. <북루멘스·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함평이 고향인 철학자 최진석의 텃지라는 신안군 장병도라는 섬이다. 섬에서의 기억은 그에게 삶에 대한 사유와 통찰을 하게 했다. 사진은 '바닷가 섬에서는 누구나 친구다'라는 작품. <북루멘스 제공>

유혹하는 유물들

박찬희 지음

청동 투구, 잔서완석루, 서직수 초상, 법화경 그림, 두 반가사유상, 물가풍경무늬 정병, 분청사기 상감구름용무늬 항아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유물이다. 중앙박물관은 시대와 분야를 대표하는 다양한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다. '명품 중의 명품'이 가득한 중앙박물관은 '명품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찬희박물관연구소장이 펴낸 '유혹하는 유물들'은 저자를 사로잡은 30여 가지 유물을 소개한다. 박 소장에게 따르면 보자마자 유혹당한 것이 있고, 처음엔 별로였는데 나중에 매력에 빠져든 경우도 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사랑하게 된 유물도 있다.

그의 고백은 섬세하면서도 개성적이다. 금동반가사유상에 대한 묘사 부분은 소설의 한 부분을 풀어낸 듯한 느낌이다. “힘을 주어야 할 부분은 놓치지 않고 힘을 주었다. 오른쪽 뺨에 댄 손가락들, 특히 새끼손가락을 보는 순간 내 손가락에도 힘이 들어간다. 사유하는 자세를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살짝 올린 오른쪽 무릎의 탄력적인 곡선과 날카롭게 솟은 몇 줄의 옷주름이 팽팽한 긴장감을 일으킨다. 사유에 몰두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다다른 절정의 순간을 약간 구부러진 오른쪽 엄지발가락으로 묘사했다.”

저자는 박물관에 곧잘 들른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전시를 보기 위해, 회의 때문에 간다. 일상에서 답답할 때면 머리를 식히려 가기도 한다. 아니면 그냥 어슬렁거리며 소요(逍遙)하기 위해 간다.

그러다 보면 유물이 말을 걸어오는 듯한 순간과 마주한다. 유물이 스며드는 것인데 그 순간 위로와 감동을 받는다. 저자는 “모닥불을 보며 멍하니 있는 불멍이 있는가 하면 불상으로 보고 멍하니 있는 '불멍'도 있다”고 언급한다. <빨간소금·1만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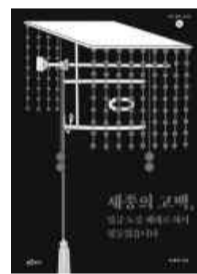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세종의 고백, 임금 노릇 제대로 하기 힘들었습니다

송재혁 지음

지금까지 세종에 대한 연구는 무수히 많았다. 그러나 대체로 주제별, 특정 분야의 분석 위주로 진행되었다.

문, 사, 철의 인문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세종의 삶과 정치를 엮은 평전이 출간됐다. 송재혁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원 연구교수가 펴낸 '세종의 고백, 임금 노릇 제대로 하기 힘들었습니다'는 이도라는 한 인간의 정치적 삶에 초점을 맞췄다.



흔히 세종(1418~1450년)을 일컬어 성군이나 명군이라 한다. 그의 재위기간의 성과만 봐도 그의 면모가 드러난다. 조선의 제4대 왕인 세종(재위 1418~1450년)은 최고의 왕으로 꼽힌다. 당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으며 태평성대를 구가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기틀을 잡았다.

이도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태종의 선택도 한몫했다. 태종은 자신 이후의 시대를 “수문(守文)”으로 규정했다. 조선을 건국한 아버지 태조와 자신이 기틀을 다진 국가를 지켜 나갈 수성(守成)의 시대로 규정했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문과 이념에 바탕을 둔 정치를 펼 수 있는 후계자를 원했다.

이번 평전은 왕으로서의 행적 뿐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시행착오 큰형인 양녕대군과의 관계 등도 다룬다. '겸습국왕' 생활을 하던 시절부터 2개월의 세자생활을 거쳐 젊은 국왕이 됐던 살얼음판 같은 시기 등도 담겨 있다. 태종의 죽음 이후 본격적인 자신의 정치를 시작한 이도의 집권 전반기, 왕위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등도 기술돼 있다.

무엇보다 세금 개혁을 비롯해 훈민정음 창제, 역사서 편찬, 통치 지침서 편찬 등 왕조의 기틀을 다진 업적도 만날 수 있다. <북루멘스·1만9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 시대의 영웅을 찾아서

이영준·이황지음

“우리 시대의 영웅은 우리 모두이며 우리 모두여야 한다” 영웅이라는 단어는 마치 영토의 확장, 분열된 국가의 통일, 국가적업으로 부터의 수호 등 대의를 바탕으로 자기희생한 인물을 말하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



하지만 더이상 현대사회에서는 상대를 죽이고 해함으로써 영웅이 될 수 없다. 오늘날의 영웅은 '죽임'이 아니라 '살림'으로서 그 가치를 드러낸다. 불어난 새벽, 잠든 이웃을 깨우기 위해 집집마다 초인종을 울려 수많은 생명을 살린 인물과 같이 말이다.

고려대학교 ICR센터 연구위원이자 한국의 1호 영웅학 연구자인 이영준과 고려대학교 ICR센터 소장 이황이 '우리 시대의 영웅을 찾아서'를 펴냈다.

사실 영웅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새로운 학문 체계로 나타나 영웅학으로 존재를 드러냈다. 대부분의 연구가 최상의 인간성보다 최악의 행동에 집중된 터라 비교적 영웅연구가 늦게 본격화 됐다고 알려져 있다.

책은 '국가유공자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영웅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와 소방관 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영웅, 우리 사회가 영웅을 길러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저자는 영웅을 '타인이나 고귀한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고 자기희생의 위험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일체의 이익을 기대하지 않은 채 인류 공통의 보편적 윤리를 자발적으로 옹기 있게 실천하며 행동의 결과로 희생이 있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평범한 일상이 위험한 시대 우리 사회는 영웅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다. 타인의 생명과 사회적 가치를 지켜내는 영웅을 말이다. <테오리아·1만8500원>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